

‘총대’ 서사의 젠더 이데올로기*

권금상(북한대학원대학교)**

이 연구는 북한의 ‘총대’ 서사를 분석하여 젠더 이데올로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총대’ 서사에 나타나는 젠더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생성되는 메시지가 여성을 재현하는 단순한 표상 차원이 아니라 일상의 정치에서 가부장적 ‘신념’이나 ‘마음’을 구축하는 인식의 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북한 문헌 및 교과서, 『로동신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아리랑〉에 나타난 서사와 의미체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서사분석은 ‘총대’ 서사의 사건, 주요인물의 역할, 전체를 구성하는 내러티브를 분석하였다. 의미 분석은 이야기와 장면 속에서의 주요 사건과 대화 및 텍스트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대’ 서사는 김일성을 구국의 영웅으로 신격화하며 남성 중심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백두혈통의 신화를 구축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여성,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과 아내 김정숙은 이중적 여성상으로 그려졌다. 그녀들은 김일성을 결사옹위하며 구국활동을 하는 혁명적인 여성이자 남성을 위해 존재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총대’ 서사에서의 두 여성상은 북한 사회가 국가적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인민을 통치하며 가부장사회를 공고히 하는 기능적인 통치의 기제로 나타났다. 북한의 ‘총대’ 서사가 고구한 전략은 부계혈통의 가

* 이 논문은 2014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43571).

**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 연구교수(shadow60x@hanmail.net).

부장질서를 강조하며 동시에 여성 위계화의 통치전략을 띠었다. 따라서 북한의 ‘총대’ 서사는 혈통 중심으로 계승되는 지배권력에 대한 신화와 가부장 질서를 승인하는 위계적 신념체계를 구축하여 젠더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

주제어: ‘총대’ 서사, 신화, 선군정치, 젠더 이데올로기, 가부장질서

1. 서론

북한의 언론매체가 북한 사회를 외부에 드러낼 때 활용하는 일반적 인 이미지는 무장한 군사력과 ‘총대’를 거머쥔 남녀 군인들의 모습이다. 북한은 ‘총대’를 통해 강력한 힘을 가진 무장국가이자 외부세계와 대적할 무장된 정신력을 가진 국가적 이미지를 확산해왔다.

이 연구가 주제로 삼는 ‘총대’ 서사란 이야기의 구성과 특정한 의미 체계를 통해 산출되는 신화적 맥락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이 연구는 서사가 생산하는 젠더문제에 접근하여 서사가 구축하는 메시지 방식과 (재)생산을 통해 드러나는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에 주목한다. ‘총대’ 서사의 내용은 김일성 집안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일 무장투쟁의 구국활동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인민들이 국가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 기억 등을 소환하고 (재)구성하여 권력에 대한 신념체계를 수반한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 특히 ‘총대’ 서사가 구축하는 젠더문제는 남성 중심의 지배 권력을 강조함으로써 일상에서 여성통치의 규범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의미체계를 세심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사회에서는 집단성을 강조하며 개인적 신앙이나 미신 담론이 억압되어왔다. 그 대신 종교적인 절대자 부재의 간극을 대치하는 것이 바로 김일성수령의 존재였다. 이러한 집단적 신념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물질·서사적 토대는 ‘총대’ 서사로서, 인민들이 남성 중심 권력과 가부장 질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문화적 원형으로 구축되어왔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유의미한 신화는 그 메시지의 대상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화가 그 메시지를 말하는 방식에 의해 규정”¹⁾ 된다고 한다. 어떤 이야기가 담론 속에서 신화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메시지를 생성하는 일정한 의미작용단계를 거친다. “신화는 이데올로기의 결과”²⁾라는 말과 같이 신화란 모든 기호를 통해 생성되는 권력 중심의 사회적 의미로 작동함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신화란 그 내용이 갖는 진실 여부에 관한 판단보다는 언어가 생산하는 사회적 메시지와 화법이 품고 있는 문화적 체계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자의 관점은 북한이 강조하는 ‘총대’란 외부를 향하는 선전의 메시지일 뿐 아니라 내부의 결속과 충성을 강제하는 사회적 신화로 여긴다는 것이다. ‘총대’ 서사는 인민들이 가부장적인 권력지배를 떠받드는 ‘신념’체계나 인민들 스스로 무장국가의 일원으로 동의하게 하는 사회적 ‘마음’의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총대’ 서사의 내러티브 분석과 의미 체계분석을 통해 사회적 신화가 형성되는 방식을 살피며, 이를 통해 나타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서의 함의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1) Roland Barthes, *Mythologies*, pp.2217~219쪽.

2) 피터 페리클레스 트리포나스(Peter Pericles Trifonas), 『바르트와 기호의 제국』, 최정우 옮김(서울: 이제이북스, 2003), 74쪽.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북한의 공식 기관지에서 출간한 문헌과 신문기사, 영상 자료에서 ‘총대’를 다룬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문헌자료는 ‘총대’ 관련 서적과 김일성, 김정일, 강반석, 김정숙 등 인물 중심의 북한 공식 출판물이다. 예컨대, 노동당출판사에서 출간한 문헌,³⁾ 교육 과정에서 다룬 교과목,⁴⁾ 조선화보집이다. 신문기사는 『노동신문』의 ‘총대’ 관련 기사내용이다. 영상자료는 북한의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의 대표작인 <아리랑>⁵⁾에서 ‘총대’ 서사를 다룬 제1장 4경 “우리의 총대”의 주요장면이다.

2) 분석방법

이 연구는 바르트(Roland Barthes)의 신화분석모델에 의해 ‘총대’ 서사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한다. 신화를 언어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언

3) 최철웅, 『총대철학』(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2003); 박경애, 『반석으로 빛내이신 한생』(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2012).

4) 김광수·리정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 소학교 3학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5); 강홍수·김명석·김영숙,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 중학교 4학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3).

5) 북한의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의 대표작품인 <아리랑>은 2002년 4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8월 15일까지 세 차례 연장하며 진행되었다. 참여인원이 10~15만 명에 이르며 처음부터 국가행사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공연으로 기획되었다. 박영정, 『21세기 북한 공연예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서울: 월인, 2007), 46쪽.

어적 현상으로 바라본 그는 신화란 “소통의 체계이며 메시지로서 의미작용의 한 형식”⁶⁾이라고 말한다. 즉, 신화는 “하나의 화법”⁷⁾이기 때문에 담론에 속하는 모든 언어활동과 언어현상은 신화가 된다는 것이다. 그의 의미작용단계에 의하면 언어와 신화의 구조 속에는 기표, 기의, 기호라는 3차원의 도식이 형성되어 있다.⁸⁾ 기표와 기의는 새로운 기호를 생성하고 내포 의미를 통해 생성되는 과정에 관여한다. 1차 단계는 외의의미(denotation) 단계로서, 언어로 이루어진 기표가 일정한 명시적 의미를 생성한다. 2차 단계는 기호와 새로운 기표가 의미를 형성하는 내포의미(connotation) 과정을 거친다. 즉, 기표와 기호로 명시한 것이 다른 함축적 의미를 생산하는 단계라는 것으로 이때부터 이데올로기와 연계되어 사회적 신화로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3차 단계는 기호와 기표로 이루어진 의미가 또 다른 기의와 결합하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이데올로기, 즉 신화를 생성하는 것이다.

<그림 1> 신화의 의미작용 단계



자료: Roland Barthes, Richard Howard and Annette Lavers. trans., *Mythologies* (N.Y.: Hill & Wang, 2012).

- 6) 송효섭, 『탈신화 시대의 신화들』(서울: 기과랑, 2005), 24~27쪽.
- 7) Roland Barthes, Richard Howard and Annette Lavers. trans., *Mythologies* (N.Y.: Hill & Wang, 2012), p.217.
- 8) *Ibid.*, p.224.

3. ‘총대’ 서사

1) 배경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강성대국으로 나가는 길은 오직 선군정치의 실현만이 가능하다 하며 군을 앞장세운 정치를 강조하였다. ‘총대’ 사상을 앞세우는 선군정치가 공식문헌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1995년 1월 1일 김정일의 다박솔초소 방문⁹⁾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전부터 지속되어온 경제난과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장기간의 식량난을 겪었다. 김정일은 이러한 어려움에서 인민을 통치하고, 김일성 시대부터 차별화 전략으로서 선군정치를 내세웠다. 김정일의 선군정치에서 토대가 되는 사상은 ‘총대 철학’으로 제시되었다. 김정일이 강조하는 ‘총대’는 시대의 변화가 요구하는 과학이론적인 발명이자 새로운 혁명철학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선군과 총대’는 고난의 행군의 총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적극적 통치전략의 일환이었다.

우리당의 총대철학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최근 년간 날로 엄혹해진 우리 혁명의 환경과 급변하는 정세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새롭게 정식화하여 내놓으신 것이다.¹⁰⁾

9) “1995년 새해의 첫 아침 다박솔 초소에 대한 시찰로부터 시작하신 선군의 위대한 령도자적 첫 출발, 그것은 또다시 전체 인민을 깨우시고 세계를 각성시키는 세계사적 사변이었다.” 『로동신문』, 1998년 5월 26일 자.

10) 최철용, 『총대 철학』, 15쪽.

‘총대’ 서사는 선군정치 체계를 뒷받침하며 인민의 결속을 다지는 사상적 근간으로 작동하게 한다. ‘총대’ 철학은 북한 사회의 혁명을 달성하고 ‘주체사상 계승’¹¹⁾을 위해 중요한 정신적 유산이라는 것이다. 1999년부터 전면적으로 등장한 ‘선군사상’은 “‘총대’로써 ‘총대’를 틀어쥐고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갈데 대한 사상으로써”¹²⁾를 강조해왔다.

‘총대’ 철학은 혁명의 이론을 제시함과 동시에 실천적인 규범을 제시한다. ‘총대’ 강령은 인민들 개개인이 인간 ‘총대’로 될 것을 요구하므로 개인의 정체성을 강제하는 근본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예컨대, 실천적 규범으로서 혁명에 있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으로서 수령 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을 내세운다.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의 건국을 가능하게 하였고, 외부세계로부터 보호하는 힘의 원천을 ‘총대’로 규정한다. 북한 권력은 ‘총대’의 중요성을 구(舊) 소련의 교훈을 시금석으로 삼으며 북한이 굳건히 사회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총대’의 위엄임을 강조한다.

총대위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다. 군대를 틀어쥐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를 고수할 수없다.¹³⁾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결사옹위정신, 총폭탄 정신, 자폭정신을 무장한 위의 혁명적 무장력이 자기의 총대를 굳건히 틀어쥐고 있는 한

11) “우리당의 위대한 선군사상과 총대철학은 우리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다.” 위의 책, 6~8쪽.

12) 림이철·최금룡, 『선군조선의 오늘』(평양: 평양출판사, 2007), 4쪽.

13) 『로동신문』, 1997년 7월 3일 자.

그 어떤 강적도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를 감히 건드릴 수 없다.¹⁴⁾

2) 내러티브 분석

일반적으로 서사는 인물의 행위와 사건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고 내러티브(narrative)를 구성한다. 이야기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등장인물에 대한 정체성 구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총대’ 서사는 국가역사를 이루는 주요 사건과 등장인물을 통해 전체 내러티브를 구축한다. 서사에서 다루는 주요 등장인물은 김형직과 강반석, 김일성과 김정숙, 그리고 김정일이라는 김일성 집안의 3대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상징적 구조인 ‘정체성’은 개인과 사회적 환경, 그리고 개인의 자기 관련적 경험들과 역사적 전기적 단계를 통합하는 결과물”¹⁵⁾이다. ‘총대’ 서사는 김일성이라는 특정가문에 전해오는 총을 통해 김일성의 구국 활동과 영웅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내러티브로 되어있다.

(1) 지원(志遠)의 ‘총대’(김일성이 물려받은 총)

북한의 공식 담론에 등장하는 ‘총대’는 1928년 2월 초 어느 날, 당시 열여섯 살이던 김일성이 선친의 총을 어머니로부터 전해 받는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이 총은 일제에 맞서 항거하다 사망한 김형직이

14) 『로동신문』, 1997년 12월 14일 자.

15) 가브리엘레 루치우스호네(Gabriele Lucius-Hoene)·아르놀프 데퍼만(Arnulf Deppermann), 『이야기 분석: 서사적 정체성의 재구성과 서사 인터뷰의 분석을 위한 이론과 방법론』, 박용익 옮김(서울: 역락, 2011), 79쪽.

그의 아들 김일성에게 물려준 총으로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김일성에게 전달된 총은 조국광복을 이룰 앞날을 위한 뜻이 담겼다는 의미에서 지원의 총으로 불린다. 강반석은 남편 김형직이 항일투쟁운동에서 활동하던 권총 두 자루를 남들 모르게 남편 묘 앞에 묻어두었다.¹⁶⁾ 강반석은 타도 제국주의 동맹 활동이 환산되었던 즈음인 1927년 추석날 묘 앞에 묻어두었던 권총을 파 가지고 돌아와 닦고 기름칠하여 아들에게 선친의 유물을 넘겨줄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28년 두 자루의 총을 물려받은 김일성은 아버지의 ‘유훈’¹⁷⁾으로 일제를 물리쳐 조국해방을 이루었다는 내러티브를 골자로 한다.

너의 아버님께서서는 돌아가실 때 이 권총 두 자루를 나에게 맡기면서 때가 되면 너에게 주라고 당부하셨다. 내가 이미 혁명투쟁에 몸 바쳐 나섰으니 아버님께서 남기신 이 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총을 가지고 아버님께서 못 다하신 조국광복의 위업을 꼭 이룩하도록 하여라.¹⁸⁾


지원의 총이라 불리는 김일성이 물려받은 선친의 총은 다음과 같은 의미작용 단계를 거친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남기신 말씀과 권총을 전달받으시는 김일성원수님’이라는 글과 아들 김일성에게 남편이 남긴 총을 전달하는 어머니 강반석의 그림은 상황을 설명하여 있는

16) 박경애, 『반석으로 빛내이신 한생』, 191쪽.

17) “김형직이 아들 수령에게 남긴 고귀한 유산 중에 두 자루의 권총이 있다. 아버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령님에게 맡기면서 남긴 것은 고귀한 정신적 유산과 함께 돈도 재산도 아닌 단 하나의 물질적 유산, 총이었다.” 최철웅, 『총대철학』, 19쪽.

18) 박경애, 『반석으로 빛내이신 한생』, 190쪽.

<그림 2> ‘지원의 총’의 의미작용 단계

지원의 총	의미작용 단계
	외시의미(1차 단계) 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남기신 말씀과 권총을 전달받으시는 김일성 원수님” ¹⁹⁾ 그림: 김일성에게 권총을 건네준 어머니 내포의미(2차 단계) ‘총대’ 가정의 탄생, 조국해방의 과제 신화, 이데올로기(3차 단계) 조국광복을 이룰 영웅 김일성

자료: 『김일성 원수님께서는 혁명가정에서 태어나시어 일찍부터 혁명활동을 하시었다』, 서문.

그대로의 외시적 의미를 드러낸다. 내포의미 단계에서는 북한의 최초 총대가정이 탄생하고 있으며 아버지 김형직이 이루지 못한 조국해방의 과제를 김일성이 총을 통해 부여받는 함축적 의미가 생성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조국의 광복을 이룰 영웅 김일성과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인민들의 운명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가 생성된다.

김일성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총대’는 북한의 항일투쟁 혁명역사에서 총과 물적인 자원이 부족하던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물질 토대이며 김일성을 건국신화의 영웅이야기로 규정하고 있다. ‘총대’ 서사는 아버지 김형직의 유훈에 의해 무장투쟁과 민족독립을 회복하겠다는 혁명적 각오를 담은 이야기로서 선군정치의 시원임을 밝힌다. 김일성의 집을 ‘총대’ 가정으로 호명하며 이 총은 바로 국가 독립과 사회주의를 이루는 물질 토대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총대’ 서사는 일제로부터 해방과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가능하게 한 김일성 일가는 구국의 가정이며, 등장인물들을 신성한 영웅 내러티브로 구조화하고 있다.

(2) 계주봉의 ‘총대’(김정일이 물려받은 총)

선군정치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총대’ 서사는 김일성으로부터 물려받은 두 번째 총에 관한 이야기이다. 김정일의 선군정치에서 활용되는 ‘총대’ 서사는 김일성으로부터 물려받은 총을 통해서 숭고한 가족의 유산을 물려받음과 동시에 권력승인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김일성 가문의 혁명 역사를 가르치는 교과과정에서는 김정일 어린 시절의 ‘총대’와 관련한 일화를 구체적인 대화 형식으로 구성하여 소학교 교과과정으로 다룬다. 열 살이던 김정일이 당시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이 주둔하는 방어선 지휘현장에 가서 두 달 동안 머물렀다고 한다. 1952년 7월 10일 조부(김형직)의 생신날 부친 김일성으로부터 선물 받은 권총 리볼버는 계주봉의 의미를 나타낸다. 계주봉으로서의 총은 김일성가문으로 이어 내려오는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고 국가적 운명을 책임지는 새로운 권력자로 규정한다.

“이 권총을 오늘 너에게 준다. 혁명의 계주봉으로 알고 받는 것이 좋겠다.” 위대한 원수님께서서는 아버님으로부터 권총을 정중히 넘겨 받으시였습니다. ... “혁명가는 평생동안 손에서 총을 놓지 말아야한다. 총은 혁명의 승리를 담보해주는 방조자라는 것을 꼭 명심해라.”²⁰⁾

전반적인 구성에서 ‘총대’ 서사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구술자는 김정일이다. 이야기를 통해 전달되는 일화는 대화체로서 당사자가 아닌

-
- 19)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혁명가정에서 태어나시여 일찍부터 혁명활동을 하시였다』(동경: 학생소년출판사, 1968), 서문.
 - 20) 김광수·리정호, 『위대한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 소학교 3학년』, 27~29쪽.

면 누구도 확인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이야기 구조를 구성한다. 부친이 물려준 총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권력자의 자전적 자기 기술은 ‘사회적 정체성’²¹⁾으로 인정되는 효과를 만든다.

지원의 총이 김일성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서사임에 반해 두 번째 총은 김정일로 하여금 구국 ‘총대’ 가정의 혈통을 이어가는 계승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김형직이 항일투쟁운동에서 사용하던 총을 김일성에게 전달하여 구국의 영웅으로 완성되었다면, 김일성이 간직해온 총은 김정일에게 승계된다는 줄거리를 통해 권력이양의 당위성을 담보하는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3) 의미 체계

(1) 지배 이데올로기

인간사회의 역사에서 신화는 권력을 기반으로 하며 지배권력을 떠받드는 방식으로 재생산되어왔다. 신화의 어원은 ‘말’, ‘이야기’, ‘연설’로서 대부분은 일반 대중도 알기 쉬운 이야기²²⁾로 구성되는 특성을 갖는다. 현대사회에서 통용되는 ‘신화’²³⁾란 한 사회에서 공유되기

21)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은 동전의 양면에 불과하며, 다양한 삶의 관련성 속에서 반영·협상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가브리엘레 루치우스호네(Gabriele Lucius-Hoene)·아르놀프 데퍼만(Arnulf Deppermann), 『이야기 분석: 서사적 정체성의 재구성과 서사 인터뷰의 분석을 위한 이론과 방법론』, 76쪽.

22) Mark P. O. Morford, Robert J. Lenardon and Michael Sham, *Classical Myt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5.

23) 신화의 본질을 논의하며 위상을 높인 사람은 셸링(Shelling)으로 1856년 『신화학의 철학(Philosophie der Mythologie)』에서 ‘신화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신들의 이론’이라 했다. 이유경, 『원형과 신화』(파주: 이갈리오, 2004), 21쪽.

나 존재하는 메시지를 의미하며 이념이나 비판적으로 담지하는 어떤 정신들을 다룬다. 구조주의학자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에 의하면 신화란 언어 중심으로 구축된 어떤 집단의 근원적인 문화체계²⁴⁾이다. 즉,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꺼리가 아니라 한 사회를 드러내는 문화의 표상이라는 것이다. 김일성 가문 중심의 ‘총대’ 서사는 특정집단에 의해 이야기 형식을 가진 신화의 형식으로써 지배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북한의 지도자인 김일성 집안에 대한 발화로서, 높은 권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키고 강요하는 물리적인 힘으로 작동되는 영웅서사로 작동한다. ‘총대’ 서사의 주요 내용과 배경은 대중들에게 와 닿는 역사 문화적 사실을 근간으로 하는 전략을 취한다. 구성된 자신들의 정체성과 연관되는 소재를 통해 더욱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서사의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

두 자루 권총의 의미는 권력 창출과 권력 승계의 의미를 함축한다. 최초의 ‘총대’ 가정을 만든 김일성일가는 구국영웅 가족으로 자리매김한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물적 근거로서의 총은 영웅신화로 짝 짝인 구조를 갖는다. 김일성이 김형직의 총을 어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물려받은 것이 국가건국에 핵심이라면, 김정일이 부친으로부터 직접 받은 총은 국가를 수호하는 역할임을 강조한다. 더구나 김정일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총은 어머니의 도움 없이 직접 받아 남성 중심의 지도자 승계의 정당화를 강조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김일성 가문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인민들을 이해시키고 기억을 강요하여 권력자에 대한 마음을 구축하게 한다.

‘대집단체제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1장 4경에는 “우리들의 총

24)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 『신화학』, 1권, 임봉길 옮김(한길사: 파주, 2005), 16쪽.

대”라는 장편의 서사가 구성되어 있다. 우리들의 총대는 국가건국과 관련된 서사와 함께 북한사람들의 정체성을 재현한다. 장면에서 연출하고 있는 글자 ‘지원(志遠)’과 ‘권총’ 그림은 김일성 가문에 남성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오는 항일투쟁의 정신적 유산과 역사적 산물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김일성 집안은 북한의 건국에 몸 바친 ‘총대’ 가정 이므로 구국 영웅의 후손에게 이어지는 지배권력 승계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특히 공연에서 활용하는 젠더의 활용은 군복차림의 여성들이 대거 등장시켜 전사로서의 강인한 모습을 통해 지배 권력을 떠받치는 여성총대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그림 3>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총대’ 서사의 의미 체계

<아리랑> 1장 4경 우리의 ‘총대’	의미작용 단계
	<p>외시의미(1차 단계) 글: 지원(志遠), 그림: 권총 두 자루 ↓</p> <p>내포의미(2차 단계) 글: ‘지원’, 항일투쟁과 구국의 상징 그림: 김일성 집안으로 계승된 권총 ↓</p> <p>신화, 이데올로기(3차 단계) 제1호 ‘총대’ 가정의 탄생, 권력승계의 정당성 강조</p>

자료: Ruidiger Frank, “The Arirang Mass Games of North Korea,” *The Asia Pacific Journal*, vol. 11, issue 46, No.2, 2013, p. 15.

<아리랑>에서 소개되는 총이 갖는 의미를 신화모델에 의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 외시의미 단계에서는 글과

그림을 통해 ‘총대’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즉, 명시적인 의미단계로서 두 자루의 총과 지원(志願)이라는 글을 통해 기표와 기의를 전달한다. 두 번째 과정인 내포 의미단계에서는 그림 ‘총’과 글 ‘지원’이 일체와 맞서는 역사적 산물임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총대’가 김일성 집안에 내려오는 유물이자, 항일투쟁을 이끌어 국가건설을 이룬 역사적 물적 토대로 규정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김일성 가문에 내려오는 권총의 의미는 권력승계 계주봉의 역할이 김정일에게 귀결됨을 의미한다. 3차 단계에서 생성된 신화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므로 권력승계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야기가 신화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의미체계를 거쳐야 하듯 ‘총대’가 신화로 작동하기 위해 일정한 의미단계를 거쳤음을 파악한다. 이렇듯 ‘총대’ 서사는 지배 권력을 떠받치기 위한 특정한 주제와 목적에 의해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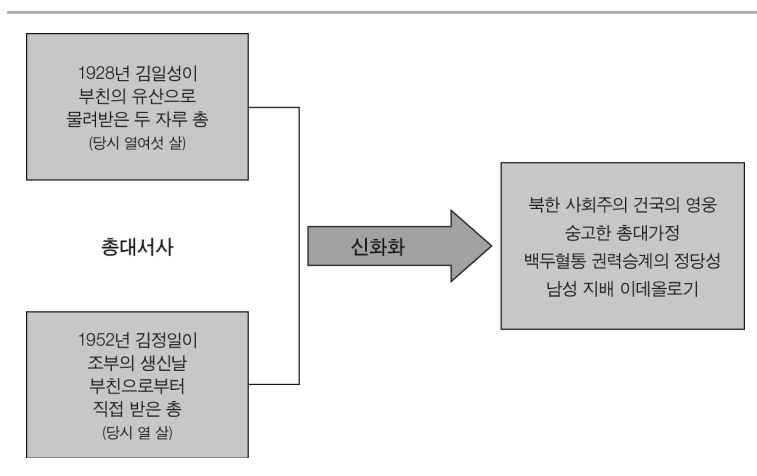
<표 1>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서 ‘총대’의 의미

신화(Myth)	III. 기호 Sign-의미작용 Signification	
	김일성 가문의 권총은 구국의 표상, 권력승계의 정당성 강조	
내포 의미 (connotation)	I. sr(기표)-form(형식)	II. sd(기의)-concept(개념)
	글과 그림을 통한 ‘총대’ 서사	‘총대’ 가족의 애국혁명성
외시 의미 (denotation)	1. 기표(sr)	2. 기의(sd)
	글과 그림	지원과 권총

선군시대에 등장한 ‘총대’는 김정일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서사는 신화의 특성 그대로의 서사체계를 갖추고 있다. 북한 권력은 ‘총대’ 서사를 통해 구국영웅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권력이앙의 정당성을 주

장한다. 권력은 총대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지배자에 대한 신념체 계로 강제하고 사회적 신화로 작동하도록 영웅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과 관련한 총은 상징적 차이를 드러낸다. 김일성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훈의 총은 지원의 총으로 명명되며 일제를 물리치는 구국의 상징성을 띤다. 김일성의 총은 작고한 선친의 유산으로 물려받아 나라를 구하므로 난세의 영웅으로 서사화되는데 그 총은 지원으로서의 상징성을 갖는다. 그 반면에 김정일이 물려받은 총은 현존하는 권력자, 수령으로부터 직접 총을 물려받아 정권이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총으로 상징된다. 따라서 ‘총대’ 서사를 구축하는 두 자루의 총은 북한사람들의 정체성과 권력 지배를 승인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적 상징물로 해석된다.

<그림 4> ‘총대’ 서사의 지배 이데올로기



북한의 ‘총대’ 서사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총대’ 서사는 김일성가문을 중심으로 구성된 애국 혁명 역사

이며 김일성 가족이 주인공으로서 여기에는 다른 조력자나 등장인물은 없다. 이러한 내용은 소수의 백두혈통으로 이어지는 권력세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둘째, ‘총대’ 서사를 통해 김일성기문을 북한의 일호 ‘총대’ 가정으로 규정하고 인민들로 하여금 숭고한 혁명성의 근간이며 애국적 윤리로 제시한다. 셋째, ‘총대’ 서사는 건국설화에 그치지 않고 문헌으로 혹은 공연으로 (재)구성되고 공간 경험으로 공유되고 확대되는 광범위한 문화체계를 갖는다. ‘총대’ 서사는 인민을 학습자이며 동시에 확산자로 체계화한다. ‘총대’ 서사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대규모 공연과 같은 집단적 참여경험을 통해 사람들의 신념체계로 구축하도록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문화정치의 원형을 구축한다.

(2) 젠더 이데올로기

‘총대’ 서사에 등장하는 두 여성은 강반석과 김정숙이다. 총대서사가 이들의 정체성을 재현하는 방식에서 북한이 그리는 여성상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 강반석은 김일성이 항일 투쟁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아들을 지원하는 애국적이며 희생적인 어머니상으로 그리며 그러한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일화를 소개한다. 당시 만주에서 항일 투쟁 활동을 하던 김일성은 일본 경찰과 중국 반동도별군들에 의해 경계망이 좁혀 들어가고 있어 혁명동지들이 체포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어려움에 처한 김일성과 동지들은 인원이 4~5명뿐이었으며 무기도 부족했었다. 그때 김일성이 가진 것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두 자루의 권총뿐이었다고 한다. 김일성은 어머니에게 무기가 더 필요한 상황을 알리며 운반 방안을 의논하였다. 강반석은 아들 동지들의 해방투쟁활동을 위해 합지박에 총을 숨겨 목숨을 걸고 무기를 배달하였다²⁵⁾고 한다. 강반석이 운반해준 총으로 김일성의 동지들

은 일본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 있었고, 조국해방을 이루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강반석은 어머니와 아들이란 사적 영역 차원에서 모성애적 실천을 넘어 조국해방혁명에 동참한 영웅으로 그려져 조국해방에 미친 영향력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의 3대 장군으로 지칭되는 김정숙은 항일 무장투쟁사에 서 김일성 결사옹위의 정신을 보인 혁명적 여성으로 추앙된다.²⁶⁾ 김정숙을 재현하는 방식에서는 혁명적인 여성이자 순종적인 여성이라는 이중적 여성성이 강조된다. 김정숙은 총 사격 실력이 뛰어난 여전사로서 일본군을 전멸시키는 용맹함을 그렸다. ‘총대’ 서사에 의하면 항일투쟁 기간 중에 어느 날은 빨치산 활동 중에 총탄이 날라 와 김일성이 위험에 빠진 순간 김정숙은 자신의 몸을 앞세워 그를 엄호했다는 희생적인 일화 <그림 5-1>를 소개한다. 또한 전쟁터에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김정숙이 단 한 대의 손재봉기로 한 달 안에 군복 600벌을 만들었다는 일화 <그림 5-2>를 통해 순종적 여성상을 강조한다. ‘총대’ 서사는 김정숙을 용감한 여전사, 희생적, 순종적 여성으로 정체성을 규정하여 가부장 질서에 순응하는 여성상을 부여한다.

주체 28년(1939년) 가을 김정숙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25) 박경애, 『반석으로 빛내이신 한생』, 195쪽.

26) 주체 29년(1940년) 6월 안도현의 갈밭 속에 숨어있던 적들로부터 김일성에게 총구가 향하자 김정숙이 “사령관 동지!” 다급히 외치며 몸을 솟구쳐 온몸으로 김일성을 막아섰고 동시에 방아쇠를 당겨 적들을 전멸시켰다. 김일성은 그때 일을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그날 김정숙이 아니었다라면 큰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는 몸으로 나를 막아서며 달려드는 적들을 모조리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강홍수·김명석·김영숙,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 중학교 4학년』, 72쪽.

가을 겨울철에 벌릴 부대의 새로운 작전을 위하여 600벌의 겨울군복을 한 달 안으로 만들 가업을 받으셨다. 재봉대원은 몇 명밖에 되지 않았고 손재봉기와 재봉기바늘도 하나뿐이었다. … 녀사께서는 몸소 재봉기를 맡으시었고 품이 많이 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제끼면서 끝내 혁명임무를 수행하시였다.²⁷⁾

북한 사회에서 덕목화되는 여성상은 혁명성과 순종성을 갖춘 강반석과 김정숙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자애롭고 모성적인 여성성을 띠면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두 명의 혁명적 여성상은 북한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적 모델로 강조된다.

북한 권력은 여성들의 충성심을 요구하며 ‘총대’ 서사의 여성상을 활용하는 전략을 폈다. 강반석과 김정숙은 북한 사회의 첫 번째 ‘총대’ 가정을 만든 장본인들이며 국가 건설에 애국적인 역할을 수행한 여성상으로 강조되었다. 두 여성은 북한의 대표적 규범적 여성으로 여타 혁명여성으로 대치할 수 없는 절대적 여성상의 위상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러나 김일성시절에 칭송되던 강반석 담론은 김정일 집권 이후 김정숙 서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문의 숭고함을 강화하고 어머니의 혁명적인 일화를 통해 역사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정숙 탄생 80돐 기념 김정숙 군관학교 건립과 관련된 기사에서 김정숙과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운동을 하던 빨치산 시절 함께 총을 쏜 모습의 동상 사진에 백두의 녀장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하였다.²⁸⁾

27) 조선화보사, 『조선의 어머니 김정숙동지』(평양: 조선화보사, 1997), 86쪽.

28) 『로동신문』, 1997년 12월 24일 자.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영웅 이미지와

김일성 사후 김정일 정권이 들어선 1990년대 중반에는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국가가 매우 어려움에 봉착한 시기에 희생적 여성상 담론이 더욱 강조되었다. 고난의 행군기에 기근으로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고 총체적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국가는 선군시대 가족의 덕목으로 여성통치 전략을 활용하였다. 국가적 담론은 가정의 혁명화라는 명명 하에 원군가족, 즉 군대와 국가를 위해 기능하는 여성의 역할을 요구했다. ‘8·3 인민소비품’ 증산운동이라는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정책과 함께 사적 영역에서는 장마당활동 등을 통해 개개인 가족의 식량거리 해결과 가사노동을 모두 책임져야하는 여성 부담의 간고함이 가중되었다. 선군시대 여성에 대한 국가적 통치전략을 분석한 젠더 연구에 의하면 북한 권력은 여성들에게 ‘전사적 여성상’²⁹⁾을 부여하며 여성노동을 강제하였고, ‘젠더 레짐’³⁰⁾을 통해 가부장사회의 유지에 여성을 통치의 대상화하였음이 드러난다.

<그림 5> 선군시대의 ‘총대’ 여성상은 불굴의 투쟁정신과 남성을 위해 희생하는 김정숙을 영웅시하며 동시에 규범적인 여성상으로 (재)생산하는 표상이다.

김정일이 강조한 선군시대 여성의 역할은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군대를 원호하며 남성을 떠받드는 김정숙이 바로 완전한 ‘총대’ 여성상을 규정하고 있다. 권력은 여성통치 전략으로서 김정숙 생애사를

함께 야학에서 아동들을 가르치고 고아들을 보살핀 자애로운 어머니 이미지가 강조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김일성, 김정일과 함께 ‘3대 장군’으로 격상되었다.

29) 박영자, “선군시대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 연구: 군사주의 국가권력의 성정체성 구성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5권 2호(2006), 153~154쪽.

30) 조영주, “북한여성의 실천과 젠더 레짐의 동학”(이화여자대학교 북한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12).

<그림 5> 선군시대의 ‘총대’ 여성상



자료: 조선화보사, 『조선의 어머니 김정숙동지』(평양: 조선화보사, 1997), 좌: 92쪽, 우: 87쪽.

재구성하고 전형적 규범화의 전략을 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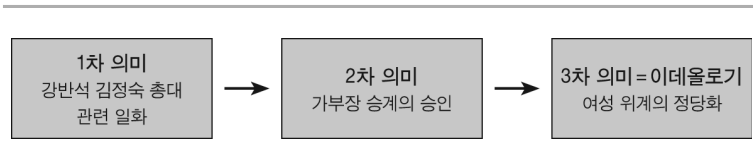
정리하면 ‘총대’ 서사는 <그림 6>과 같이 강반석과 김정숙의 일화들을 혁명성과 순종성을 가진 여성으로 강조하여 북한 사회가 지향해야 할 여성상으로 규정한다. 더 나아가 ‘총대’ 서사에 그려진 두 여성들의 조력자적 역할과 이중적 여성상을 활용한 일상의 정치는 남성 중심의 권력승계와 가부장질서를 승인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

‘총대’ 서사를 통해 나타나는 강반석과 김정숙은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을 위해 존재하는 혁명적이고 순종적인 이중적인 여성상으로 귀

31) 김일성 사후 <그림 5-1>은 주요 내용이 변화였다. 같은 이야기를 주제로 하되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 동지처럼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자”는 제목하에 김일성의 손에는 총이 없고 김정숙만 총대를 쥐고 있는 것으로 그렸다. 변화한 도상을 통해 김정숙은 수령을 위한 인간방패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박계리, “선군미술의 도상학,”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Vol. 1(2014), 664쪽.

결된다. 혁명을 위해서는 용감한 여성으로 투쟁하며 남성을 위해 희생하고 순종하는 여성이야말로 선군시대가 지향하는 ‘혁명적 현모양처’임을 강조한다. 이중적 여성상의 규정은 북한 권력에서 여성배제의 사회적 동의를 이끌게 되는 사회적 담론을 만들고 가부장질서를 강조하여 계급문제를 심화시키는 기제가 되는 것이다.

<그림 6> ‘총대’ 서사에 따른 젠더 이데올로기



북한의 건국신화로 구축된 ‘총대’ 서사는 다음과 같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함의한다.

첫째, ‘총대’ 서사는 북한의 대표적인 두 여성의 혁명적, 순종적 일화를 통해 북한 사회가 고구하는 이중적 규범적 젠더규범을 규정한다. 어머니와 아내인 두 여성을 그려냄에 있어 오직 김일성을 위해 존재하는 여성정체성을 부여한다.

둘째, ‘총대’ 서사는 남성 중심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유훈으로 이어지는 ‘총대’는 1호 ‘총대가정’이라는 영웅신화를 만들고, 남성 중심의 권력지배를 강제한다.

셋째, ‘총대’ 여성상은 북한 사회가 여성을 통치하는 젠더정치의 틀로 재(생산)된다. 혁명적 여성상을 주변적 정체성으로 고정하여 여성 위계화와 가부장질서를 승인하는 문화체계를 구축한다.

4. 결론

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대’ 서사는 내용구성과 등장인물의 정체성 부여를 통해 신화적 상징체계를 생산하고 있다. ‘총대’ 서사는 선군시대부터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국가 전설의 배경과 역사적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집단적 기억을 소환하는 강력한 건국신화로 작동한다. 김일성 집안의 총대는 외부로부터 침략을 막아 국가의 존립에 가장 영향력 있는 물적 토대로 강조되었다. 이러한 내러티브와 의미체계를 통해 인민들로 하여금 김일성 가문으로 이어지는 구국영웅에 대해 충성을 하도록 정치화하여 왔다. ‘총대’ 서사는 김일성 일가를 항일투쟁사의 구국영웅 가족으로 신성시하는 결과를 만들고 더 나아가 ‘김일성 민족’이라는 호명 담론을 만들고 있었다. 이렇듯 ‘총대’에 관한 신념이 가능한 것은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이끈 항일투쟁사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총대’ 서사의 역할은 북한사람들로 하여금 권력자에 대한 절대적 믿음체제로 작동하도록 하고 세대를 이어가면서 권력 승계에서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뒷받침한다.

‘총대’ 서사는 지배 권력의 신화로서 큰 특징을 갖는다. 김일성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영웅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내러티브 구성으로 나타났다. ‘총대’ 가정의 시원인 김일성의 항일투쟁 활동과 김정일로 이어지는 권력이양의 서사를 통해 인민들을 통치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도록 한다. 서사의 내용이 단순한 옛날이야기식의 설화가 아니라 김일성이라는 현실적인 인물, 항일투쟁의 역사적 사실, 그리고 모두가 기억하는 건국역사를 통해 일상을 이루는 강력한 정치신화로 구축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총대’ 서사는 교양과 선전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집단공연과 같은 문화체계와 규범으로 (재)생산되어 일상을 지배하는 실용적 통치도구로 작동한다. 남한의 건국신화가 단군신화로 자리매김하여 박제된 설화 차원에 머문다면 북한의 건국신화는 유기적이며 순환적인 차원으로 일상을 정치한다. 즉 총대서사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며 사람들의 기억과 정서에서 분리되지 않는 이데올로기의 통치기제로 구성되고 인민들에게는 지속적 교육과 대규모의 집단 참여를 통해 일상으로 체현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총대’ 서사로 구성된 북한의 건국 설화는 인민들의 경험에 기반을 두어 기억의 정치로 활용되며 지배집단에 대한 충성을 강제하는 신화로 자리 잡게 된다. 권력은 서사의 이데올로기를 정책으로 담론화하면서 동시에 학교와 공연을 통해 확대하는 (재)생산 방식을 활용한다. 인민들을 기억시키며 권력에 대한 충성의 동의를 구하는 기제이자 두터운 신념체계로 작동한다. 총대서사는 김일성 일가의 정체성을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으로 구축한다. 동시에 지배권력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확대 재생산되는 방식을 통해 협상의 과정을 수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총대’ 서사는 텍스트에 머물지 않고 (재)생산되어 일상에 파고드는 현실적인 통치도구로 작동하도록 한다.

‘총대’ 서사는 북한사람들의 사회집단을 지배하는 정신적 관념과 표상으로 재생산되고 있어 특히 여성들의 계급과 실존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총대’ 서사는 지배권력 담론을 강조하기 위해 가부장 질서하에서 여성에 대한 위계적 호명을 부여하고 자명하게 지배세력에 부응하게 하는 여성통치의 근간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총대’ 서사는 여성들을 혁명남성의 옹위 역할로 배치하는 서사로

서 가부장질서에 의한 젠더불평등 사회를 강조한다. ‘총대’ 서사는 내러티브를 통해 통치이데올로기를 개념화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고 여기에 여성들의 역할을 통해 위계화된 젠더사회와 가부장문화를 공고히 하고 있었다. ‘총대’ 서사의 의미작용을 통해 나타난 북한 사회의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성 중심의 권력승계를 승인하는 여성의 위계적 위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대’ 서사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여성의 현실을 지배하고 가부장 질서를 지속하게 하게 하는 신화체계로서 (재)생산의 기제가 된다. ‘총대’ 서사는 인민들에게 김일성 가문으로 이어지는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담보하며 동시에 가부장적 권력에 대한 믿음을 강제하는 문화적 체계의 젠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 접수: 3월 16일 / 수정: 3월 31일 / 채택: 4월 3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강홍수·김명석·김영숙,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 중학교 4학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3).

김광수·리정호,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 소학교 3학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5).

람이철·최금룡, 『선군조선의 오늘』(평양: 평양출판사, 2007).

박경애, 『반석으로 빛내이신 한생』(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중앙위원회, 『김일성원수님께서 혁명가정에서 태어나시어 일찍부터 혁명활동을 하시었다』(동경: 학생소년출판사, 1968).

조선화보사, 『조선의 어머니 김정숙동지』(평양: 조선화보사, 1997).

최철웅, 『총대철학』(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3).

2) 신문

『로동신문』, 1997년 7월 3일 자; 1997년 12월 14일 자; 1997년 12월 24일 자; 1998년 5월 26일 자.

2. 국내 자료

1) 단행본

레비 스트로스, 클로드(Claude Lévi-Strauss), 『신화학』, 1권, 임봉길 옮김(한길사: 과주, 2005).

루치우스호네, 가브리엘레(Gabriele Lucius-Hoene)·아르놀프 데퍼만(Arnulf Deppermann), 『이야기 분석: 서사적 정체성의 재구성 과 서사 인터뷰의 분석을 위한 이론과 방법론』, 박용익 옮김(서울: 역락, 2011).

바르트, 롤랑(Roland Barthes), 『현대의 신화』,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 옴김(서울: 동문선, 1997).
- 박영정, 『21세기 북한 공연예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서울: 월인, 2007).
- 송효섭, 『탈신화 시대의 신화들』(서울: 기과랑, 2005).
- 이유경, 『원형과 신화』(파주: 이끌리오, 2004).
- 트리포나스, 피터 페리클레스(Peter Pericles Trifonas), 『바르트와 기호의 제국』, 최정우 옴김(서울: 이제이북스, 2003).
- 해리스, 로이(Roy Harris),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 어떻게 언어로 놀이를 하는가』, 고석주 옴김(서울: 보고사, 1999).

2) 논문

- 박계리, “선군미술의 도상학,”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Vol. 1(2014).
- 박영자, “선군시대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 연구: 군사주의 국가권력의 성정체성 구성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5권 2호(2006).
- 조영주, “북한여성의 실천과 젠더 레짐의 동학”(이화여자대학교 북한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12).

3. 국외 자료

1) 단행본

- Morford, Mark P. O., Robert J. Lenardon and Michael Sham, *Classical Mythology*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Roland Barthes. *Mythologies*. Richard Howard & Annette Lavers, trans.(N.Y: Hill & Wang, 2012).

2) 논문

- Frank, Ruidiger, “The Arirang Mass Games of North Korea,” *The Asia Pacific Journal*, vol. 11, issue 46, No. 2(2013).

Gender Ideology of ‘Chongdae Narrative’

Kwon, Keum Sang(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the gender ideology by analyzing narrative of ‘Chongdae’ in North Korean. The reason of attended to gender issues is not just a symbol that appears in the narrative dimension to reproduce patriarchal women ‘belief’ in the politics of everyday life and ‘mind’ and to work to build a framework of recognition.

For carry out this study, analyze the narrative and semantics shown in, *RodongSinmun*, a masterpiece of ‘Grand Mass Gymnastics and Artistic Performance’ <Arirang>. Narrative analysis was done in the ‘Chongdae’ narrative of the events that make up the total, the role of the main characters, the whole thing. Semantic analysis is to analyze the conversations and text and highlights of the story and the scene in gender ideology was extracted accordingly.

The results show that a total of Kim Il-sung hero of the narrative is deified Salvation, and build the myth of the ‘Baekdu’ lineage that

power inherited by male-dominated. Two women, Kim Il Sung's mother Kang Ban-Suk and wife Kim Jung-Suk was featured here are reproduced in the dual type female.

They are serve as the assistant to the Revolutionary Association of Women and defend to Kim Il Sung and activities of the National Salvation. Furthermore, two women in the epic is ruled by the people every time North Korea will be in the national difficulties appeared as a mechanism to strengthen the rule of functional patriarchal society.

Thus, the gender ideology that produced 'Chongdae' narrative is (re)construct a hierarchical and patriarchal beliefs to accept the myth that in order for a ruling handed down by lineage center.

Keywords: 'Chongdae' narrative, myth, 'Songun' politics, gender ideology, Patriarchal order